



에히메 결혼지원센터 “아이무스비”의 빅데이터 활용



상황

저출산의 주요 요인인 미혼화·만혼화 대책으로서 적당한 상대를 만날 수 없다는 이유로 독신을 선택하는 자를 대상으로 결혼 지원 사업을 추진한 결과, 운용상 데이터가 연간 50만 건씩 축적돼 왔다. 2014년도에 이러한 데이터를 “빅데이터”로서 분석해 만남에서 교제나 결혼으로 발전할 가능성의 향상을 꾀했다.

내용

결혼 지원 시스템에 대한 빅데이터의 활용

- ① 한 남성 A 씨가 한 여성 B 씨에게 맞선 신청을 한다.
- ② 과거 B 씨에게 맞선 신청한 남성군의 행동 데이터가 검출된다.
- ③ 동시에 과거 실적을 바탕으로 “A 씨가 속한 그룹을 선호하는 여성 그룹”도 마찬가지로 검출된다.
- ④ 검출 결과를 활용해 “같은 취향의 남성이 선택한 여성 그룹”에 속해 있으면서 “A 씨가 속한 그룹을 선호하는 여성 그룹”에 속한 자를 시스템에 표시한다.
- ⑤ 이를 통해 A 씨는 성격이 잘 맞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일방향적인 검색만으로는 열람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 새로운 상대와 만날 수 있다.

효과

· 여성 회원의 맞선 신청 증가

여성은 거절당하는 것이 두려워 자신이 맞선을 신청하는 데 소극적인 경향이 있으나, 빅데이터의 추천이 있으면 마음에 드는 상대에게 맞선 신청을 하기 쉬워진다.

· 맞선실시율의 향상

일반적으로 1대1 맞선의 신청 상대방이 맞선을 승낙할 확률은 13% 정도이지만 빅데이터가 추천한 상대에게 신청한 경우에는 29%에 달한다.